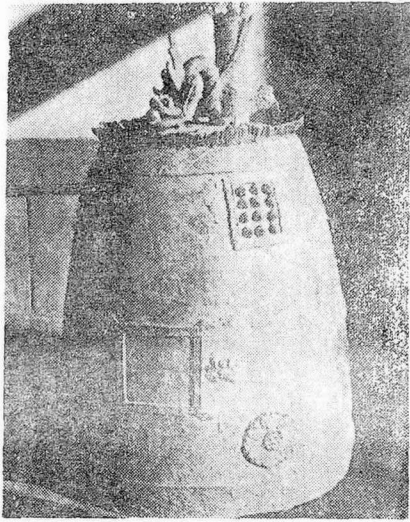


橫城 橋項里出土 高麗銅鍾

鄭 永 鎬

지난 四月 十二日(午後 六時) 江原道 橫城郡 橫城面 橋項里에서 古鐵探知機로 古鐵蒐集作業을 하던 三名의 青年에게 依하여 發見 出土된 것인데 當時 이 銅鐘外에 四點의 土器도 함께 探掘하였으며 그 후 곧 管轄署에 申告되어 現在 橫城警察署에 保管中이다. 六月五日 筆者가 이 地方 踏查時 現品을 調査한 바 있다.



第六卷 第六號 通卷五十九號

通型的 靑銅製高麗梵鐘인데 總高 六五cm로서 小鐘은 아니다. 鐘頂에는 甬筒과 龍鈕를 가지고 있는 바 龍頭는 부름뜯는 것과 卒뿔은 鬚等 雄健한 手法를 보여 주며 口에는 如意寶珠를 물고 발에 도(現在는 一足 缺失)寶珠를 갖고 있다. 甬筒에는 全面에 龍鱗이 있고 그 頂上에는 四珠가 있다. 鐘肩 上 周緣에는 單瓣의 立狀蓮華紋을 돌렸으며 上, 下帶에는 菱形의 雷紋과 珠紋을 같은 手法로 새겼는데 下帶만은 上部에 幅 1cm의 唐草文帶를 陽鑄하였다. 上帶바로 밑으로 四處에 乳廓을 配置하고 唐草文을 돌린 안에는 十二乳頭(三×四=十二)를 갖고 있는데 그 數가 九頭인 通式과 相異한 點이 注目되었다. 幢座는 圓形으로서 下帶에 近接된 頂部分 四處에 配置되었으며 모두 子房을 가진 重瓣八葉의 蓮華文이 彫飾되

었다. 鐘腹에는 坐像 四軀가 配置되었는바 이 像들은 모두 小形으로 同一한 形態인데 安座한 千手像으로 보여지며 兩手를 들어 머리위쪽에서 一棒의 禪杖(?)을 옆으로 길게 치켜들었고 다른 兩腕은 양쪽으로 벌리고 있다. 相好에 目, 口, 鼻 등이 보이나 各部에 衣文은 보이지 않는다. 鐘身에 飛天이나 或은 菩薩像을 配置하는 것이 通式으로 알려져 있으나 今番 調査된 이러한 形式의 梵鐘은 異例的이라 하겠다. 또 一處의 坐像 바로 옆에는 乳廓처럼 方廓(鐘形 十一·三cm×十一·二cm)을 마련하고 唐草文을 새겼으며 그 안에는 銘文等 아무런 彫飾이 없는데 이러한 額廓의 樣式도 興味로운 일이다. 鐘口가 손에 닿는 觸感이 두툼하면서 그 안으로 점점 깊어지는 點이 新羅時代의 鐘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梵鐘의 固有한 形式이다. 배흘림이甚하지 않은 말쑥한 鐘身과 龍鈕의 手法等으로 보아 麗代의 優作이라 하겠다. 出土品이어서 鐘內外 全面에 靑錄鏽가 있을뿐 거의 完形이다. 伴出物인 土器四點은 모두 麗代의 것으로 推定되는데 그中 一點은 高麗靑磁甕으로 덮혀있던 痕跡이 確然하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靑磁는 發色이 좋은 便으로 손잡이는 蓮形이다. 以上 遺物의 出土地는 寺址로서 ② 이곳에서 移搬된 三層石塔이 ③ 現在 橫城郡廳後「어린이 놀이터」에 再建되어 있으며 傳聞한 바에 依하면 本誌에 이미 紹介된 靑銅製小鐘도 ④ 昨年 가을에 이 寺址附近에서 出土되었다고 한다.

實測值(cm) 鐘身高 四八·五 甬筒高 一六·五 口徑 四一·五 上徑 二五 上帶 三·五 下帶 五 口徑厚 三·三 幢座徑 七·八 乳廓 八×八(土器는 各已高 四〇, 三七, 三七, 三五).

註

- ① 이 용화(三才 勞働, 京畿道 坡州郡 파평면 금파리) 김종진(二九才 農業, 京畿道 漣川郡 漣川面 통현리) 박종규(二〇才 農業, 江原道 橫城郡 橫城面 邑下里 五반)
- ②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五二九頁參照
- ③ 拙稿 橫城佛蹟其一(本誌 第五卷 第十二號)
- ④ 李浩官 橫城出土靑銅製小鐘과 무쇠술(本誌 第六卷 第一號)